

## 테일러 스위프트, '2023 애플 뮤직' 올해의 아티스트



▲ 테일러 스위프트가 '2023 애플 뮤직'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사진=애플 뮤직

'테일러노믹스(Taylormomics)'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가 '2023년 애플 뮤직(Apple Music)'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9일 애플 뮤직에 따르면, 올해 열 달 동안 스위프트는 65개의 곡을 애플 뮤직 '오늘의 톱(Top) 100: 글로벌'

차트에 올렸다. 다른 아티스트들을 압도한 숫자다. 특히 스위프트의 2019년 앨범 '러버(Lover)' 수록곡인 '크루엘 서머(Cruel Summer)'는 올 여름 애플 뮤직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다. 4년 만인 올해 4월 처음으로 '오늘의 톱 100: 글로벌'에 진입한 뒤 머물고 있다.

또 작년에 낸 정규 10집 '미드나이트'의 공개일 및 공개 첫 주 글로벌 스트리밍 수는 모든 여성 아티스트의 앨범을 통틀어 애플 뮤직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스위프트는 애플 뮤직 사상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여성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스위프트는 "올해를 가장 놀랍고, 기쁘고, 기념적인 해로 만들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모든 일은 음악을 멈추지 않고 스트리밍하고, 실제 공연에서 함께 노래를 목청껏 따라 부르고, 영화관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춘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할리우드 배우노조 파업 종료 ... 118일 만

할리우드 배우들이 약 4개월간 이어온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할리우드는 그동안 작가에 이은 배우 파업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8일 성명에서 "오늘 오후 118일간의 파업을 끝내는 영화·TV 제작자연맹(AMPTP)과의 잠정 합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잠정 합의안에는 배우들의 최저 임금을 올리고 스트리밍 플랫폼의 재생영 분배금을 늘리며 건강·연금보험 기여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콘텐츠 제작에서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새로운 규칙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할리우드는 1960년 이후 63년 만에 배우·작가



▲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 회원들이 협상 타결 소식을 확인한 뒤 환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동반 파업 사태를 맞았다. 올 들어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들 사이에선 대형 제작사들이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재생하는 콘텐츠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제작사가 배우들의 목소리나 이미지, 작가들의 창작물을 AI를 통해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1만1,5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미국작가조합(WGA)은 지난 5월부터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브러더스 등 할리우드 대기업에 맞서 파업을 시작했다. 배우들도 7월부터 파업에 동참했다. 작가노조는 9월 말 AMPTP와 합의하며 파업을 끝냈다. 그간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개봉과 제작 일정을 잇따라 연기했던 할리우드가 배우와 작가들의 복귀로 곧 정상화될 전망이다.

## 83세 알 파치노, 4개월 아들 양육비로 월 3만 달러 지급



▲ 알 파치노. 사진=연합뉴스

할리우드 원로배우 알 파치노(83)가 여자친구 누르 알팔라(29)에게 4개월 된 아들 양육비로 월 3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파치노는 지난 9월 알팔라가 제기한 두 사람 사이의 아들 로만 파치노의 양육권 신청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양육권은 알팔라가 갖고 파치노는 아들에 대한 정기적인 접근권을 얻었다.

알팔라는 약 3개월 전인 지난 6월 로만 파치노를 출산한 바 있다. 알팔라는 당시 인스타그램에 아기의 작은 손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 로만"이라고 썼다.

양육비는 파치노가 보고한 연 소득 250만 달러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알팔라는 더 많은 양육비 지급을 주장한 반면, 파치노는 아들을 위해 다른 기여를 하고 있다며 양육비가 더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대부' (1972)에서 주인공 마이클 콜레오네를 연기해 스타덤에 오른 알 파치노는 1993년 '여인의 향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전 연인 2명과 사이에서 딸 줄리 마리(33)와 쌍둥이 남매 안톤·올리비아(22)를 뒀으며, 로만이 네 번째 자녀다.

1498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1에 있습니다)

5	3			2				9
	4				3			8
		2		8	9			
7					8			6
3			2					7
		1		7		5		
9			8			1	3	
		7			2		5	
	8		5	6				

날말퍼즐 정답

1	시	래	2	기				3	애	당	4	초	
	첻			5	고	6	속	도	로			창	
7	말	8	미		눈					9	훈	기	
			사		썩			10	고	민			
			11	여	벌			12	긋	정			
13	체	구						은		14	음	15	지
	크			16	구	우	일	17	모				혈
18	인	간	미					19	방	파	제		